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19년 이전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고, 2022년 들어 늘어나는 모습임
 -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인구 천 명당 음주사고 사망자 수, 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등이 독일,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사고 건수, 상습적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건수도 2022년 들어 증가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정신질환),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의 기대비용 등이 제시되어왔는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음주운전의 기대비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 2002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s; 이하, 'BAC') 기준 강화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최대 15년 징역)하였고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오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함
 - 미국의 경우 1984년 법정음주연령(21세) 제정과 1990년대 BAC 기준 강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함
 -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는 경우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됨
 - 한편,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리됨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두 배 이상 할증하는데, 보험료 인상이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에 연관된 음주운전자 수,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사이에는 음(-)의 선형관계가 뚜렷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보험 할증률이 15% 내외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함
-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기대비용을 현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음주운전 사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판결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검토 배경

○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2년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2012년 29,093건에서 2022년 15,059건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모두가 증가함(〈표 1〉 참조)
- 또한, 2023년 들어 4월 7일까지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동기예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¹⁾

〈표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추이

(단위: 건,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 건수	29,093	26,589	24,043	24,399	19,769	19,517	19,381	15,708	17,247	14,894	15,059
사망자 수	815	727	592	583	481	439	346	295	287	206	214
부상자 수	52,345	47,711	42,772	42,880	34,423	33,364	32,952	25,961	28,063	23,653	24,261

자료: 경찰청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클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이 영국 다음으로 높고 인구 천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자동차 등록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모두 높은 가장 높음(〈표 2〉 참조)

〈표 2〉 2019년 기준 주요국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

(단위: 백만 대, 명, %)

구분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자동차 등록 대수	23.2	56.5	31.5	81.8
교통사고 사망자 수(B)	3,349	3,059	1,748	3,215
음주운전 사망자 수(A)	295	228	210	159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8.8	7.5	12.0	4.9
인구 천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0.57	0.27	0.32	0.13
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1.27	0.40	0.67	0.19

자료: 전용식·윤성훈·김연희(2021),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영국은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독일은 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를 참조함

1) 머니투데이(2023. 4. 14), “대낮 음주사고 2배 ↑ ...경찰, 음주운전·스쿨존 특별단속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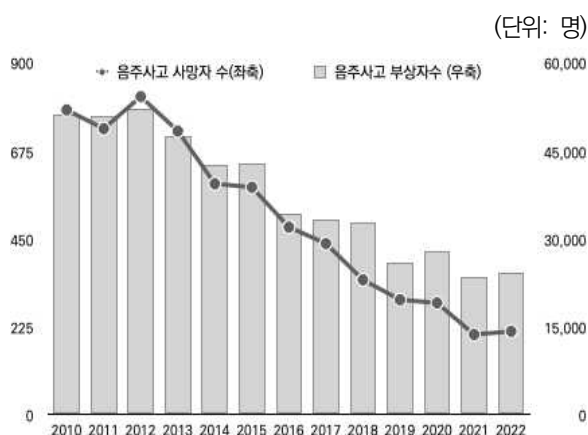
-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각종 기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일 수 있음
 - 동아일보가 음주운전 사상사건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9건으로 집계되었고 사망사고 최고 형량은 4.5년임²⁾
 - 음주 전과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음³⁾
- 본고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를 경험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음주운전 억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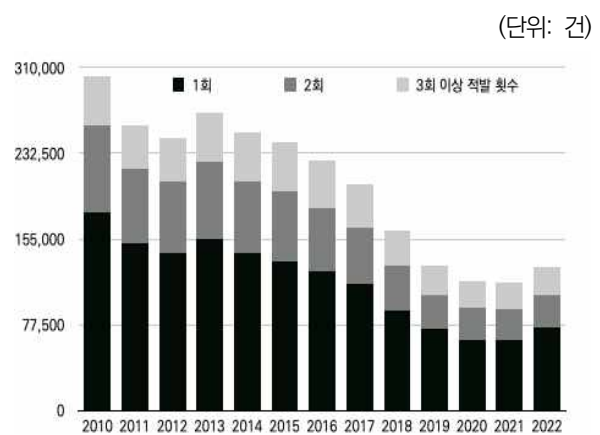
2. 음주운전 현황

-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그림 1〉 참조)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그림 2〉 참조)는 2020년 이후 높아지고 있음(〈그림 2〉 참조)
 -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2020년과 2022년 각각 전년에 비해 늘어났고 20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에 비해 17.0%(1회 적발), 8.5%(2회 적발), 4.7%(3회 이상 적발) 증가함

〈그림 1〉 음주운전 사망자·부상자 추이



〈그림 2〉 음주운전 적발 건수



2) 동아일보 사설(2023. 5. 3),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인 나라”

3) 머니투데이(2022. 12. 20), “음주운전 재범, 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 냈는데 집행유예...이유는”

○ 한편, 연령별·성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1회 적발 비중은 20대 남성, 2회 이상 적발 비중은 30~60대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2회, 3회 이상 적발 비중은 40대 남성(각각 25.8%, 30.4%)에서 가장 높고, 1회 적발 비중은 20대 남성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3〉 참조)

〈표 3〉 2022년 연령별·성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비중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회	25.4	3.4	23.2	4.1	15.6	4.4	12.2	2.4	5.7	0.6	1.4	0.0
2회	8.8	0.5	21.6	1.7	25.8	3.3	22.4	2.3	10.2	0.6	1.7	0.0
3회 이상	2.4	0.1	13.8	0.6	30.4	1.6	31.7	1.5	15.1	0.6	2.1	0.0

주: 0.0은 0.01보다 작은 수임

자료: 경찰청



3.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감소 사례

○ 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정신질환),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기대비용 등이 제시되었음

- 오승연·이정택(2017)은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평생 유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음주운전 경험률이 2015년 기준 11.5%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상습적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치료 제도 도입을 주장함⁴⁾
- Hansen(2014)은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s; BAC) 기준 강화, 음주운전 형량 강화 및 면허정지 기간 장기화, 벌금 인상 등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이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⁵⁾
- Sloan and Githens(1994)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이 음주운전 빈도를 줄인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⁶⁾

○ 선행연구와 같이 BAC 기준 강화, 벌금 인상, 양형 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기대비용 상승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감소 효과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⁷⁾

4) 오승연·이정택(2017),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 『KIRI 리포트』

5) Hansen, Benjamin(2014), "Punishment and Deterrence: Evidence from Drunk Driving", NBER Working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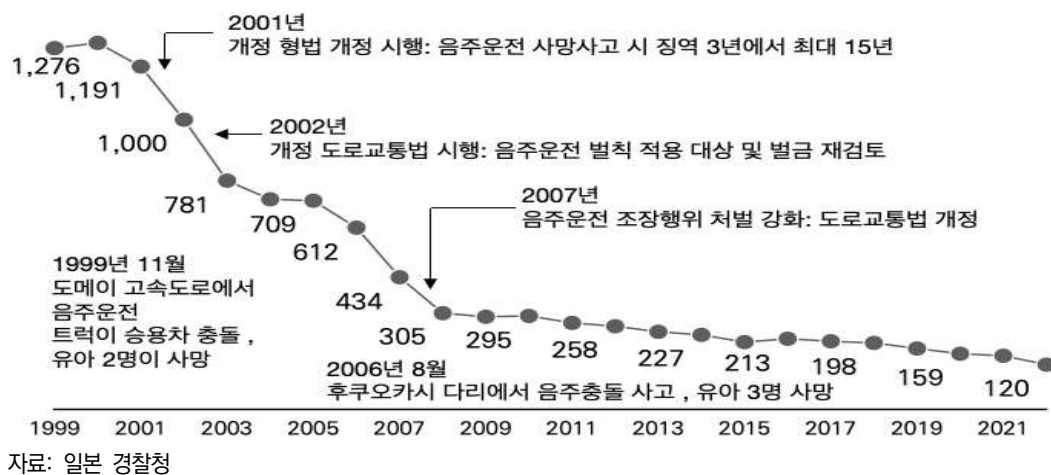
6) Sloan A., Frank and Penny B. Githens(1994), "Drinking, Driving and the Price of Automobil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1, No. 1, pp. 33~58

7) Nakahara, Shinji., Kota Katanoda and Kasao Ichikawa(2013), "Onset of a Declining Trends in Fatal Motor Vehicle Crashes Involving Drunk-driving in Jap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23, Issue 3, pp. 195~204

가. 일본

-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 2002년 BAC 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였고, 판결에 반영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감소함
 -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이 6배 인상되었으며, 처벌이 가능한 BAC 기준도 0.5에서 0.3mg/ml(0.03%)로 강화됨
 - 1999년 11월, 2000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의 여자 어린이와 두 명의 대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2000년 11월과 2001년 10월 각각 16만 명과 37만 명의 음주사고 처벌 강화 청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됨
 - 일본은 BAC 0.03%와 더불어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데, 0.15~0.25mg/1L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미만의 벌금, 그리고 90일 면허정지,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및 2년 면허정지에 처하고 주류를 제공한 자 또는 동승자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2022년 120건으로 감소함
 -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하락함

〈그림 3〉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이와 주요 법 개정 현황



나. 미국

- 미국은 법정음주연령(21세) 제정과 BAC 기준 강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함(표 4) 참조
 - 1984년 법정음주연령법(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시행으로 합법적인 음주연령이 21세로 상향되었

고 1988년까지 모든 주가 채택하고 시행함

- 법 시행 이후 198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이 41%이었는데, 동 비중이 1995년 32%, 2010년 31%, 2019년 28%로 하락함
- BAC 기준 강화 효과는 최근 미국 유타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타주는 최근 BAC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었고 이후 1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함
 -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6개 주가 BAC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중이 6%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⁸⁾
 - 2023년 기준으로 유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가 BAC를 0.08%로 정하고 있으며, 10대 운전자와 상업용 트럭 운전자들에게는 무관용 수준(Zero Tolerance Level)으로 0.02%를 적용함

〈표 4〉 미국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단위: 명,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9	2020
사망자 수	43,825	44,599	41,817	41,945	43,510	32,999	35,485	37,806	36,355	38,824
음주운전 비율	41	40	32	32	31	31	30	29	28	30

자료: 미국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는 경우라도 2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됨(〈표 5〉 참조)

〈표 5〉 뉴욕 주의 음주운전 관련 주요 형벌

BAC 기준	초범	재범
0.05~0.07% 이하	• 300~500달러 벌금(추가 벌금 255달러) 또는 15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90일간 면허정지 처분 • 교육프로그램(Victim Impact Panel) 참석	• 5년 이내인 경우, 500~750달러 벌금(추가 벌금 255달러) 또는 30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6개월 이상 면허 취소 • 교육프로그램(Victim Impact Panel) 참석 • 10년 이내 3번 이상 위반일 경우 750~1,500달러 벌금(395달러 추가 벌금), 180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최소 6개월 이상 면허 취소/교육프로그램 참석/2~3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8) Hingson, Ralph., Timoty Heeren and Michael Winter(2001), "Effect of Recent 0.08% legal blood alcohol limits on Fatal Crash Involvement", *Injury Prevention* 2000, 6, pp. 109~114

〈표 5〉 계속

BAC 기준	초범	재범
0.08% 이상	500~1,000달러 벌금(추가 벌금 395달러) 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모두) 6개월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10년 이내 두 차례: 1,000~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혹은 모두) 1년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2급 음주운전 치사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달러 이하의 벌금	[1급 음주운전 치사죄] 15년 이하 징역, 5,000달러 이하의 벌금
0.15% 이상	1,000~2,5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1년 징역(혹은 모두) 1년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중 시동잠금장치/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 이내 두 차례 위반일 경우: 1,000~5,000달러 벌금 혹은 1년 징역(혹은 모두)/1.5년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중 시동잠금장치/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 이내 세 차례, 2,000~10,000달러 벌금 혹은 최대 7년 징역(혹은 모두)/1.5년 이상 면허 취소

주: 1급 음주운전 치사죄는 2급 음주운전 치사죄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인데, ①BAC 0.18% 이상, ② 10년 이내 0.08%로 처벌받은 경우, ③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④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⑤15세 이하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등임
 자료: 김종갑(2021), 『음주운전 재범 억제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 미국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함⁹⁾

-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없는 운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평균 1,442달러(1년)인데,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될 경우 약 2,320달러로 61% 인상됨(〈표 6〉 참조)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9%, 두 차례일 경우 12% 인상에 불과함

〈표 6〉 미국 주요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료와 음주운전 보험료 증가율

					(단위: 달러, %)
구분	위반사례 없는 경우	속도위반 1회	사고 1회	음주운전 적발 1회	음주운전 보험료 증가율
올스테이트	2,047	2,326	2,828	3,017	47
아메리칸 패밀리	1,371	1,608	1,658	1,754	28
가이코	1,148	1,481	1,820	2,973	159

9) <https://www.usnews.com/insurance/auto/what-is-an-sr-22>

〈표 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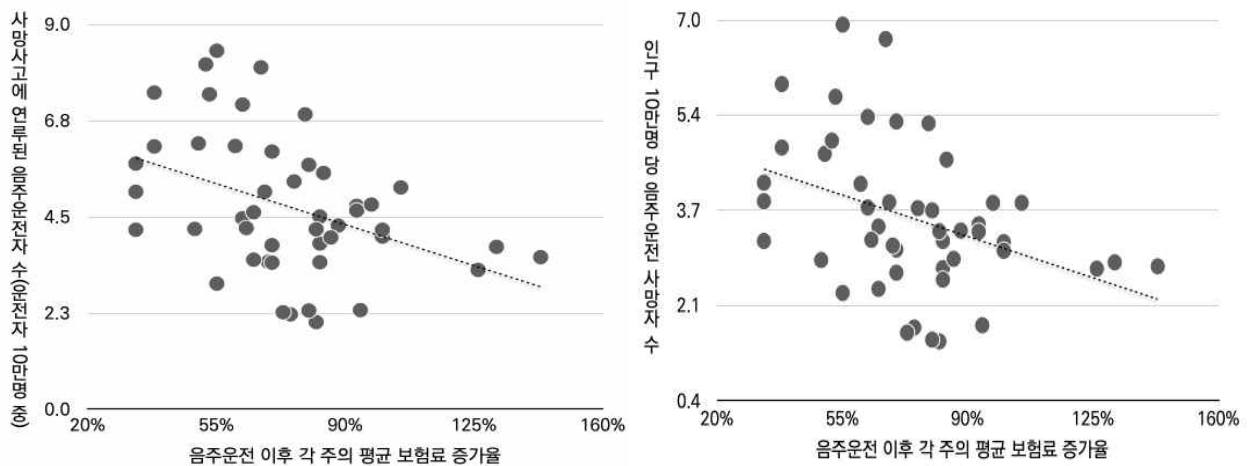
구분	위반사례 없는 경우	속도위반 1회	사고 1회	음주운전 적발 1회	음주운전 보험료 증가율
파머스	1,917	2,407	2,785	2,653	38
네이션와이드	1,327	1,629	1,955	2,685	102
프로그레시브	1,533	2,015	2,470	1,983	29
스테이트팜	1,267	1,409	1,516	1,711	35
트레블러스	1,371	1,826	1,932	2,203	61
USAA	1,000	1,203	1,404	1,905	91
평균	1,442	1,767	2,041	2,320	61

자료: <https://www.usnews.com/insurance/auto/what-is-an-sr-22>

○ 미국에서는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에 연관된 음주 운전자 수, 그리고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사이에는 음(-)의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4〉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에 연관된 음주운전자 수 〈그림 5〉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자료: Forbes Advisor(2023. 1. 23), “How much Do car insurance rates go up after DUI?”; Forbes Advisor(2022. 11. 18), “Worst States for Drunk Driving, Ranked”



4. 시사점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2019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 다시 늘어남
- 이러한 모습은 2019년 6월에 시행된 BAC 기준 강화의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인지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었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나, 2023년 들어 크게 늘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함
-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일본과 미국에서 BAC 기준 강화, 음주가능연령 상향 조정, 형사 처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실제 판결의 형량도 높음
 - 일본과 미국의 BAC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리됨
 -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6세, 7세 여아를 사망하게 한 61세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함¹⁰⁾
 - 일본과 다르게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혹은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상당히 높은 할증률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기대비용을 크게 높임
 - 일본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이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초범일 경우 9%, 재범일 경우 15% 내외 인상에 그침
 - 반면 미국의 경우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60% 높아지고, 각 주별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 비중이 낮은 관계가 나타남
 - 미국의 경우 BAC 기준 강화, 높은 양형 기준, 높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정신적 측면의 치료(Victim Impact Panel), 보호관찰기간 설정과 기간 중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음주운전 억제방안이 시행되고 있음
-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기대비용을 현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높여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Japan Times(2022. 3. 25), "Drunken driver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over deaths of two children"